

010101로보큐 멀티자판기 품질 업그레이드



멀티자판기 시장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품질강화이다. 지금까지 국내 멀티자판기 시장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품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필드에서는 다양한 내용상품을 적용 판매할 수 있다는 멀티자판기의 장점이외에도 원벽한 관리의 안정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멀티자판기의 경우 다양한 규격의 내용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 로스를 줄이는 세심한 기술력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유관되는 멀티자판기 메이커들이 이런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로보큐가 새롭게 출시한 업그레이드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의 단점을 집중 보완하고 광고기능의 추가, 디자인 강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제품 경쟁력을 지향했다. 이른 바 G3버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로보큐 신제품,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봤다.

현재 로보큐 제품의 주된 수요처가 되고 있는 곳은 해태제과와 게이트마켓이다. 해태제과의 멀티자판기는 한국 철도유통을 통해 국철구간에 운영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멀티자판기 운영사업을 펼치는 게이트마켓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두 업체에서 활발히 운영사업을 펼치다보니 로보큐 제품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 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필드에서 좀더 높은 운영효율을 얻기 위해서 품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져 왔던 게 사실이다. 누구보다 이런 시장의 니즈를 잘 알고 있는 로보큐는 그간 심혈을 기울인 품질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렇게 선보인 게 이른 바 G3버전이라 일컫는 로보큐 신제품이다.



로보큐는 최신 버전의 제품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진행할 야심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540만원(vat포함)으로 저렴한 만큼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현재 해태제과, 게이트마켓을 중심으로 제한된 제품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일. 메이커 주도로 멀티자판기 시장 볼륨을 높일 수 있도록 대리점 모집을 통한 시장 확대에도 많은 비중을 둘 나갈 계획이다.



▲ 전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자판기

새롭게 선보인 업그레이드 제품은 우선 디자인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초기모델인 G1 버전이 빨간색, 그 후 선보인 G2 버전이 파랑색 디자인이 었다면 G3 버전은 화사하고 산뜻한 노랑색의 외관을 채택했다.

캐비닛 상단에 동영상 광고판을 설치한 것도 차별화 요인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동안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

보드 통합 등을 통해 내부 프로그램 간소화하여 오작동을 줄이고 속도도 빨라지게 한 점도 돋보인다.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 운영자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자 편리성도 배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품 투출 장치인 바스켓 구조를 안정화시킨 점도 특징이다. 예전에는 외부충격을 가할 시 내용상품이 낀

때 바스켓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 구조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새롭게 보완된 최신 버전 제품은 최근 활발히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품질개선에 공을 들인 만큼 운영자들로부터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보큐는 최신 버전의 제품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진행할 야심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540만원(vat포함)으로 저렴한 만큼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현재 해태제과, 게이트마켓을 중심으로 제한된 제품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일. 메이커 주도로 멀티자판기 시장 볼륨을 높일 수 있도록 대리점 모집을 통한 시장 확대에도 많은 비중을 둘 나갈 계획이다.

멀티자판기 시장수요가 아직은 충분히 따라주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장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G-3버전은 로보큐의 위상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로보큐는 G3 버전을 바탕으로 멀티자판기의 전성시대를 여는 야심에 찬 도전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